

(주)마니커

● **신선육 브랜드 이미지 교체**

(주)마니커(대표이사 한형석, www.maniker.co.kr)는 신선육 전제품에 사용되는 포장용기, 라벨 등 브랜드 이미지를 전면적으로 교체한다고 지난 9월 23일 밝혔다.

새롭게 교체할 신선육 포장용기는 재활용이 가능한 PP 및 PET 재질로 기존 스티로폼 용기에 비해 친환경적이고, 기존 재질에 비해 원가가 3~4배 더 들어가지만 제품 가격에는 변동이 없다고 회사측은 소개했다.

아울러 마니커는 새로운 포장의 신선육 제품을 9월말까지 전면 교체키로 하고, 각 제품별 특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 닭고기 업체로는 처음으로 BI(Brand Identity)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 **증권거래소 상장심사 통과**

마니커가 증권거래소 이전을 위한 상장심사를 통과했다고 8월 27일 밝혔다. 따라서 9월중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9월말이나 10월초 전체 발행주식수의 30%에 해당하는 45만주 규모의 일반공모를 거쳐 10월 중순에는 증권거래소로 이전해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체리부로

● 『델리퀸 삼계탕』 일본시장 본격 진입



(주)체리부로(대표이사 김인식 www.cherrybro.com)는 지난 9월 16일 품질과 영양, 맛의 선별에서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에 즉석에서 데우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델리퀸 삼계탕』 레토르트(상온보관) 제품을 수출, 일본시장에 본격 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출되는 『델리퀸 삼계탕』은 일본인의 입맛을 고려하여 닭발, 닭뼈, 양파, 마늘, 생강 등을 진하게 우려낸 육수에, 육질이 쫄깃하고 담백한 육종인 국내산 삼계를 사용하고, 통마늘, 밤, 대추, 고려인삼을 추가하여 맛과 영양에서 매우 우수하며, 고압 멸균(retort)한 제품으로 18개월 장기보관이 가능하여 유통상의 편의를 더했다.

무엇보다 간편함을 선호하고 바쁜 일본인의 생활패턴에 맞춰 전자렌지나, 냄비에 데우기만 하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높은 선호도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체리부로는 이번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크로마 무역상사와의 계약에 따라 지난 9월 19일 부산항을 통해 델리퀸 삼계탕 10여톤을 1차 수출하고, 연말 2차 선적을 비롯, 지속적인 수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삼계탕 이외에도 『델리퀸 안동찜닭』 제품도 함께 수출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고 밝혔다.

● 김인식 회장, (주)금계 준공행사 및 간부사원 워크샵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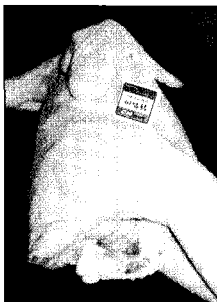
체리부로 김인식 회장은 지난 9월 25일 전남 장성에 위치한 자회사 (주)금계의 준공행사와 더불어 개최된 「2003년 사업정책 수립을 위한 경영진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에 새롭게 준공된 (주)금계는 3천여평의 부지에 700여평의 건평으로 일평균 5만수의 생산규모를 갖춘 삼계와 육계 세미 전문 도계장이다. 체리부로는 호남지역을 거점으로 한 (주)금계를 통해 삼계와 육계 일부를 당일 배송 시스템으로 신선하게 고객에게 전달하는 전략이다.

김인식 회장은 이날 경영진 회의에서 2003년 체리부로 사업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고, 전반적으로 침체된 육계산업에서의 성장방안으로 보다 강화된 예측경영을 통한 전략적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안강CM(주)

● 키토산 먹인 기능성 토종닭 출시



한강CM(주)(대표 홍응수)는 지난 8월 키토산 기능성 토종닭을 출시, 시범 판매하고 있다.

이번에 출시한 “키토산을 먹인 씨암탉”은 키토산, 숯 등이 첨가된 사료를 급여하여 60~70일령까지 키운 것으로 1년여에 걸쳐 4~5회 시험사육을 거쳐 출시하게 되었다.

“키토산을 먹인 씨암탉”은 현재 서울·수도권 재래시장에 통닭형태로 벌크포장하여 유통되고 있으며, 다른 토종닭과 차별성을 기하기 위해 “CM치킨마트 닭고기”라고 새겨진 뾰뾰한 종이재질인 네모난 식별표를 일종의 총

(銃)을 이용하여 생계 닭 가슴부분에 꽂아서 판매하고 있다.

이 식별표는 현재 일부 유럽지역에서 각광받고 있는 것을 수입한 것인데 시간당 8천수의 부착이 가능하며 과거 일부업체에서 사용한 발목부착식 이표보다 생산비도 저렴하다고 한다.

“키토산을 먹인 씨암탉”은 현재 동종제품 보다 비싼 가격에 팔리며 소비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